

TOT LINE·포플레이 포비스 “우리가 무등기 챔피언”



16일 영광대마산단야구장에서 끝난 제1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에서 광일리그 우승을 차지한 TOT LINE의 배준연 감독이 행거를 받고 있다.



16일 제1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무등 리그에서 우승한 포플레이 포비스 선수들이 정승원 감독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전남 사회인야구인들의 ‘가을잔치’ 무등기 야구대회의 주인공이 탄생했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한 제12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결승이 16일 영광대마산단야구장에서 열렸다.

광일리그에서는 TOT LINE이 (주)삼진을 9-6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포플레이 포비스는 END를 상대로 13-3 승리를 거두고 무등리그 우승팀에 등극했다.

TOT는 위리위스와의 준결승에서 선발 김진성의 완투로 12-7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정진산업스카이어와 준결승에서 맞붙은 삼진은 2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한 이현의 활약 속에 7-3 승리를 기록했다.

마지막 광일리그 결승 무대에서 만난 TOT와 삼진. 삼진이 1회 상대의 제구 난조 속에 먼저 2점을 만들었다. 그리고 2-1로 앞선 2회말에는 시원한 홈런도 나왔다. 1사 2루에서 이현이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4-1을 만들었다.

TOT가 상대 실수로 맞은 4회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사에서 신셋별이 유격수 포구 실책으로 출루했고 이어 이규영, 강균환, 박석연의 3연속 안타가 나왔다. 다시 한번 내야에서 상대 실책이

광일리그 - TOT, 역전·동점 뒤 추가점 ... 삼진에 2년 전 1점 차 패배 설욕

무등리그 - 포플레이, 4회에 6득점 ... 화끈한 화력으로 END에 13-3 대승

나오면서 6-4 역전에 성공했다.

4회말 TOT의 마운드가 흔들렸다. 3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2실점을 하면서 6-6. 하지만 TOT가 집중력을 발휘해 남은 이닝 추가 점수를 내면서 9-6으로 승리를 확정했다.

승리를 지휘한 배준연(45) 감독은 “2년 전 대회에서 삼진과 결승에서 준우승을 했다. 당시 1점 차로 졌는데 젊은 선수들이 잘해줬고, 재미있게 즐거운 게임을 했다. 팀원들 모두 부상 없이 즐겁게 대회를 치러서 좋다”며 “전체적으로 팀 연령대가 높아서 다치지 않고 편하게, 즐기자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경기에 임했다. 노련미 있는 팀인데 즐겁게 경기를 하고, 운 좋게 우승을 차지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등리그 마지막 경기는 END와 포플레이 포비스의 맞대결로

전개됐다.

END는 에어패스 파죽지세와의 준결승전에서 4이닝을 1실점으로 막은 양진의 활약 속에 14-1, 4회 볼드스를 거두고 결승행을 확정했다. 포플레이도 그린라인과 준결승전에서 1회부터 4점을 뽑는 화력을 발휘하면서 12-0, 4회 볼드스를 장식했다.

화끈한 화력으로 결승 무대에 오른 두 팀. END가 1회초 1사에서 나온 정준도의 좌월 솔로포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이후 팽팽한 마운드 대결이 펼쳐졌고, 3회 포플레이가 승부를 선두타자 홍정환이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와 폭투로 3루까지 향했고, 김석민의 2루 땅볼 때 홈에 들어왔다.

균형을 맞춘 포플레이가 4회말 대거 6득점에 성공했다. 김현호의 내야안타를 시작으로 김창집의 볼넷, 양하성의 몸에

맞는 볼로 1사 만루. 장재혁, 박문수, 홍정환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포플레이가 7-1로 전세를 뒤집었다.

포플레이는 7-2로 앞선 6회에도 김현호의 2타점 3루타 등을 묶어 6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END는 마지막 7회 정준도의 적시타 등으로 1점은 만회했지만 경기는 13-3, 포플레이의 승리로 끝났다.

포플레이의 정승원 감독은 “올해 창단했는데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한 것 같아서 기쁘다. 포비스 야구 클럽에서 연습을 많이 하면서 좋은 타격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자기 플레이 열심히 하자고 하면서 결승을 준비했다”며 “팀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대회를 치르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20년 정도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많은 대회에 나갔는데, 무등기 첫 우승이라 더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를 위해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나훈)와 영광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최영민)가 힘을 보탤다. 전남도와 KIA 타이거즈도 대회 후원을 맡아 지역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 야구에 함께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기 결승전

◆광일리그
TOT LINE 0114111-9
(주)삼진 2202000-6
▲승리투수: 강균환 ▲홈런: 이현(2회 1점·삼진)

◆무등리그

END 1000101-3
포플레이 포비스 001606-13
▲승리투수: 양하성 ▲홈런: 정준도(1회 1점·END)

광일리그 'TOT LINE'

최우수 선수 인터뷰

무등리그 '포플레이 포비스'

“건강하고 즐겁게 야구하겠다”

좌익수·3번타자 강균환



“팀원들이 각 포지션에서 함께 잘 해서 최우수선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공수에서 좋은 활약을 하며 TOT LINE의 대회 무등기 첫 우승을 이끈 강균환(43)은 동료들에게 승리의 공을 돌렸다. 이날 강균환은 3번 타자 겸 좌익수로 나와 타점도 수확했고, 마운드 위기 상황에서는 구원 투수로 나와 팀의 승리를 지켰다.

그는 “사회인 야구를 한 지는 8년 정도가 된다. 여러 팀에서 뛰면서 1회부터 무등기 대회에 자주 참가했다. 무등기에서 우승한 것은 처음이다. 나 혼자 잘해서 이룬 것은 아니고 팀원들 덕분에 이룬 우승과 최우수선수상이다”라며 “점수가 바빙으로 가고 있을 때 투수로 역할을 했고, 수비들이 실수하지 않고 함께 잘 막아주면서 상을 받게됐다”고 언급했다.

마운드와 외야에서 역할을 하는 강균환은 팀의 ‘멀티 플레이어’이자 ‘멘탈 코치’이기도 하다.

그는 “투수를 계속했는데 어깨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은 다양하게 내·외야도 나가고 투수도 하고, 포수도 하고 있다(웃음)”며 “79년생 양피 친구들이 팀에 많이 있는데 실수하면 돌려도 하고, 이야기도 해주면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겁게 야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잘해서 아닌 열심히 해 받은 상”

포수·3루타 포함 3안타 김현호



“제일 잘해서 준 상이 아니라 제일 열심히 해서 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플레이 포비스의 김현호(34)가 3루타 포함 3안타 활약을 하면서 무등리그 MVP에 등극했다.

이날 투수로도 마운드에 올랐던 김현호는 “감독님, 단장님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손영생 대표님이 야구를 많이 도와주고 지원해주면서 우승하고 상까지 받게 됐다”며 “포수로 팀 수비에 기여했고, 타격에서도 역할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초반 1-1로 맞선 팽팽한 상황에서 김현호는 4회 선두타자로 나와 안타를 만들면서 대량 득점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그는 “최대한 실점 안 하려고 실수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사회인 야구 10년 차, 무등기 우승은 처음이다.

그는 “무등기에는 많이 나왔는데 처음 우승을 해서 기분이 더 좋다. 다같이 연습을 많이 하다보니 실력이 느는 것 같다. 올해 두 번째 대회에 나왔는데 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했다”며 “평일에 일상을 살고, 주말에 야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또 올 시즌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왔다. 일상으로 돌아와 옛날처럼 야구를 즐길 수 있어서 좋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단 한 판에 ... 허무하게 끝난 가을야구

와일드카드 결정전 KT에 2-6 패배

4년 만에 펼쳐진 KIA 타이거즈의 ‘가을 잔치’가 하루 만에 끝이 났다. KIA는 지난 13일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8개의 잔루를 남기면서 2-6 패배를 기록했다.

밀었던 투·타의 핵심 선수들의 성적이 아쉬웠다.

KIA는 이날 선 놀림을 선발로 내세웠다. 후반기 가장 꾸준하고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김중국 감독은 ‘긴 이닝’을 기대했지만 2.2이닝 3실점(2자책점)으로 놀림의 마지막 등판이 끝났다.

야수진에서는 ‘핵심’ 나성범이 아쉬움을 남겼다.

나성범은 0-3으로 뒤진 4회 1사 2루에서 우전 안타를 기록했지만, 5회 2사 1루에서 2루 땅볼로 물러났고 2사 1·2루에서 맞은 7회 세 번째 타석은 헛스윙 삼진이었다.

무엇보다 0-2로 뒤진 3회말 수비가 아쉬웠다. 2사 2루에서 알포드의 우전안타를 처리하던 나성범이 공을 뒤로 빠트리면서 KIA는 실책으로 세 번째 실점을 기록했다.

놀림과 소영준이 1·2회를 파퓰트로 막으면서 초반 마운드 싸움이 펼쳐졌다. 볼넷으로 시작한 3회말 선발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다.

놀림이 선두타자 배정대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박경수의 희생번트로 1사 2루, 심우준의 안타로 1사 1·2루가 됐다. 이어 조용호의 우측 담장 때리는 2루타에 두 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놀림이 황재균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알포드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이때 나성범의 포구 실책으로 2루에 있던 조용호가 홈에 들어왔다. 놀림이 볼넷까지 허용하자 KIA 마운드가 움직였다. 파노니가 출격해 초구에 장성우를 유격수 플라이로 잡고 급한 불을 껐다.

4회초 KIA가 반격에 나섰다. 선두타자 류지혁이 좌익수 키 넘는 2루타로 분위기를 살렸다. 이창진이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지만 나성범의 우전안타로 1사 1·3루, 소크라테스의

적시타로 KIA가 득점에 성공했다.

최형우의 1루 땅볼에 이어 김선빈의 볼넷이 나오면서 2사 만루가 됐지만 황대인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5회 KIA가 상대의 실책으로 점수를 더했다.

1사에서 박찬호가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류지혁의 땅볼로 2사 2루가 됐다. 이창진의 땅볼 때 1루 베이스 커버에 들어간 투수 소영준이 강백호가 넘긴 공을 떨어트리면서 박찬호가 3루를 돌아 홈까지 들어왔다.

KIA는 6회에는 1사에서 나온 최형우의 우측간 2루타로 선발 소영준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지만, 후속타가 불발됐다.

3회 일찍 출격해 파노니는 7회까지 3.1이닝을 2피안타 1볼넷 무실점으로 지키면서 허리 싸움을 해냈다. 그러나 KIA는 7회 찾아온 기회도 살리지 못했다.

1사에서 박찬호가 좌전안타로 나간 뒤 도루까지 성공시켰다. 류지혁의 볼넷이 이어졌지만 이창진이 유격수 플라이로 물러났고, 나성범의 방망이가 헛물었다.

결국 KIA는 8회 3실점으로 승기를 내졌다.

전상현, 이준영의 7회를 막은 뒤 8회 이의리가 마운드에 투입됐다. 이의리가 첫 타자 황재균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지만 3개의 볼넷으로 1사 만루에서 강판됐다. 장현식이 투입됐지만 배정대에게 싹쓸이 2루타를 맞으면서 점수는 2-6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9회말 KIA의 마지막 공격이 전개됐다. 2사에서 박찬호가 세 번째 안타를 만들면서 자신의 첫 가을 무대를 불태웠지만, 류지혁의 타구가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결국 2-6패로 경기가 끝나면서 애매하게 ‘가을 야구’를 기다렸던 마무리 정해영은 마운드에도 오르지 못하고 짐을 썼다.

‘특급 지원’에도 어렵게 5위를 확정했던 KIA는 김중국 감독의 아쉬운 용병술과 함께 포스트시즌을 씁쓸하게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